

대구주보

가정, 가장 가까운 교회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연중 제17주일 2016.7.24.(다해) 제2008호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_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남산동) (053)250-3048~9 _ <http://www.daegujobo.or.kr>



성유대철성당 성모자상과 십자가상(사진 : 대구대교구 가톨릭사진가회)

† 오늘의 전례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루카 11,9)

예수님께서서는 기도할 줄 모르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언제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신뢰심을 가지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께 꾸준히 기도합니다.

제1독서 창세 18,20-32

제2독서 콜로 2,12-14

복음 루카 11,1-13.

입당송 하느님은 거룩한 거처에 계시네. 하느님은 한마음으로 모인 이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시고, 백성에게 권능과 힘을 주시네.

화답송 ◎ 주님,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은 응답하셨나이다.

영성체송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답례 살겠습니다 금주의 실천 사항(평신도위원회 제공)

“가족모임을 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께 무엇을 청할 것인가?

김교산 알체리오 신부 | 인평본당 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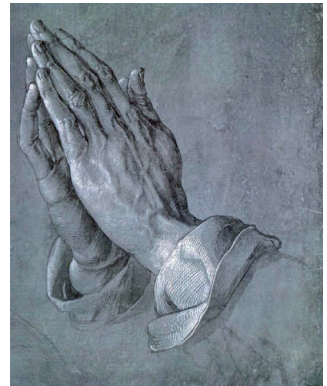
예비자 교리를 할 때 예비자들에게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고 물으면, 대다수가 자기 소원을 신께 비는 거라고 합니다. 세상이 너무 살기 힘들고 고달프니까 복을 받아 편하고 행복하게 살려는 모든 인간들의 소망이 바로 ‘기도란 신께 소원을 비는 것’이라는 정의로 드러납니다. 기도란 과연 소원을 청하는 것인가요?

오늘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주십니다. 주님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당신이 아니라, 하느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소원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광이 세상에 빛나고, 하느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우리 개개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마침내 천국으로 구원해 주소서... 이런 뜻입니다. 결국 개개인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느님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개인의 소원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과 소원이 이루어져야 천하의 만민들에게 구원과 은총이 골고루 돌아가기 때 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께 내 소원이 이루어지길 비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 저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결국 기도란 하느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고 세상이 하느님 뜻대로 돌아가도록 하느님을 찬미하고 사랑을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기도를 드릴 것인가?

“하느님! 사랑합니다. 비천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가 당신이 주신 십자가를 끝까지 잘 지고 가서 마침내 당신 나라에 들게 하소서. 그때까지 제가 믿음과 사랑과 순종 안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필문**



알브레히트 뒤러_기도하는 손

찬미받으소서

정의의 실현인 평화

신중호 분도 신부 | 정평본당 주임

♪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 모래 빛 /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

우리가 잘 아는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김소월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모래 빛이 반짝이고 강물이 유유히 흐르는 아름다운 우리 강이 있습니다. 바로 내성천입니다. 회룡포를 돌아 흐르는 강입니다. 이 강이 이제 본래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상류에 영주댐이 들어서면서 모래가 강으로 흘러들어오지 못하고 물도 댐에 막히면서 모래톱은 사라지고 육지화 되고 있습니다. 흰수마자라고 하는 우리 토종 물고기도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마땅히 하느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이웃에게 주어야 할 것을 주려는 지속적이고 확고한 의지”(교회 교리서 1807항)가 바로 정의입니다. 정의란 본디 그의 것을 그에게 돌려주는 것이지요. 그 사람의 것을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원래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것들을 그 자리에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정의가 아닐까요? 모래가 있어야 될 자리에 모래가 있도록, 흰수마자가 있어야 될 자리에 흰수마자가 있도록, 나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나무가 있도록 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모래와 맑은 강과 물고기와 나무와 꽃들... 각각의 모양은 전부 다르지만, 이 다른 모양들이 함께 모이고 어우러지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 ‘조화롭다’고 합니다. 굳이 모난 것을 둥글게 만들지 않고, 둥근 것을 모난 것으로 만들려 하지 않음입니다. 그

렇게 조화로운 피조물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봅니다.(회칙 84-85항 참조) “예수님께서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감탄하셨던 들판의 바로 그 꽃들과 새들은 이제 그분의 빛나는 현존으로 충만하게 됩니다.”(회칙 100항) 그렇기에 정의로운 것은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회칙 86항 참조) 조화로우미 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평화롭다고 합니다. 정의가 망가지면 평화도 그만큼 멀어집니다. 그래서 “평화는 정의의 실현”(사목헌장 78항)입니다. “평화와 정의, 그리고 피조물 보호는 서로 철저히 연결된 주제입니다.”(회칙92항) 그래서 조화를 추구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참된 사랑과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심 없는 노력으로 연결되고 이어져야 합니다.”(회칙 91항) 환경에 대한 관심과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은 별개의 것이 아니지요.

정의와 평화는 하느님의 것이고 정의와 평화는 하느님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피조물의 보호는 정의와 평화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날이 더워지면 낙동강에는 다시 녹조가 창궐할 것이고 아름다운 모래 강은 점점 그 본래의 아름다움을 잃어갈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인간의 힘에 의해서 이 조화가 깨어지는데도, 금 모래 빛 강변이 변해 가는데도 우리는 왜 모르고 있을까요? 다음에는 교황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원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전에 내성천을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것은 어떨지요. [▶](#)

볼링(Bowling)

뜨거운 여름철, 실내에서 즐기기 좋은 스포츠 가운데 하나인 '볼링(Bowling)'은 교회에서 유래된 스포츠입니다. 한 손으로 공을 굴려서 마루 끝에 세워진 10개의 나무 핀을 쓰러뜨려 쓰러진 핀의 수로 승패를 겨루는 실내경기인 볼링은 생각보다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기원전 5000년경 영국의 한 고고학자가 이집트 고분에서 볼링도구와 유사한 놀이기구를 발견했는데, 이를 통해 공을 굴려서 물건을 쓰러뜨리는 놀이가 옛날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볼링의 기원은 중세 유럽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3~14세기 경 독일의 수도자들은 '케겔 쓰러뜨리기(Kegling)'라는 일종의 종교 의식을 했었는데 호신용 곤봉의 일종인 케겔을 세워 두고 둥근 물체를 굴려서 쓰러뜨렸습니다. 케겔을 악마로 간주하였고 이것을 쓰러뜨린 사람은 신앙심이 두텁다고 여겼고, 쓰러뜨리지 못한 사람은 신앙심이 부족하다고 여겼으므로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점치는 신중한 의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가 케겔 넘어뜨리기가 널리 퍼지자 점차 신앙심과는 관계없는 흥미 위주의 놀이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수도

원 내에서는 금지하게 되었고 교회 밖으로 나와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등에서 크게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16세기에 이르러서는 마르틴 루터가 볼링핀을 9개로 고정된 나인핀을 고안했는데, 유럽 전역으로 퍼져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이 무렵 영국에서는 '론 볼스'라는 경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잔디 위에 하나의 공을 놓고 일정한 거리에서 다른 공을 굴려서 가장 가까이 닿게 한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었습니다. 1626년 '나인핀스'라는 볼링과 '론 볼스'가 아메리카대륙에 전해졌으나 나인핀스가 인기를 얻어 급속히 퍼졌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도박으로 유행하게 되자 청교도인들의 반대운동에 부딪쳐 한때 자취를 감추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당함을 참을 수 없었던 건전한 볼링 애호가들이 10개의 핀을 사용하는 현재의 '텐핀스 볼링'을 창안하게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한국전쟁 직후 미군기지 내에 볼링장이 생긴 것이 시초이며 1969년 코리아 볼링센터가 개장하여 점차 대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볼링을 하는 사람(Bowler)을 '케글러(Kegler)'라고도 하는데, 이는 케겔에서 파생된 독일어의 흔적입니다. **▶**



햇볕 한 줌

친절과 배려가 가져다 준 행운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늦은 밤, 차를 몰고 가던 노부부가 미국 필라델피아의 허름하고 작은 호텔을 찾았습니다. “예약을 못 했는데 혹시 방이 있습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신의 호텔에 빈방이 없던 직원은 근처의 다른 호텔에도 연락을 해 보았지만, 그 도시에서 열리는 행사로 인해 어느 곳 하나 빈방이 없었습니다.

그 직원은 “죄송합니다만 빈 객실이 없습니다. 폭우가 내리치는데 이 밤에 차마 그냥 나가시라고 할 수도 없고, 괜찮으시다면 누추하지만 제 방에서 주무시면 어떨지요?”라며 기꺼이 자신의 방을 제공했습니다.

그 호텔 직원의 방에서 하룻밤을 묵고 아침을 맞이한 노부부는 다음날 호텔을 나서며 “어젠 너무 피곤했는데 덕분에 잘 묵고 갑니다. 당신이야말로 제일 좋은 호텔의 사장이 되어야 할 분이네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저희 집으로 초대할 테니 거절하지 말아 주세요.” 그러면서 감사의 뜻으로 방값의 세 배를 건넸으나 그 직원은 자신의 방은 객실이 아니므로 받을 수 없다며 극구 사양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여전히 그 호텔에서 성실히 일하고 있던 그 직원에게 뉴욕행 비행기표와 함께 방문해 달라는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2년 전 바로 자신의 방에서 묵었던 노부부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휴가를 내고 뉴욕으로 날아갔습니다. 노신사는 그를 반기더니 뉴욕 중심가에 우뚝 서 있는 한 호텔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호텔 어때요? 맘에 드나요?” “와~ 정말 아

름다운데요. 그런데 저런 고급 호텔은 너무 비쌀 것 같습니다. 좀 더 저렴한 곳으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노신사가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말아요. 저 호텔은 당신이 경영하도록 내가 지은 겁니다.”

그 노신사는 백만장자인 월도프 애스터(William Waldorf Astor)였고 변두리 작은 호텔의 평범한 직원이었던 조지 볼트(George Boldt)의 친절과 배려에 감동하여 맨하튼 5번가에 있던 선친 소유의 맨션을 허물고 호텔을 세운 것입니다.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최고급 호텔로 알려진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 1893년 이 호텔의 초대 경영자로 세계 굴지의 호텔 체인을 이룩한 호텔왕 조지 볼트(George Boldt)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필름**



교구 행사

■ 세계청년대회 발대미사



사진제공 : 월간 <빛>

2016년 폴란드 크라쿠프 세계청년대회 대구대 교구, 안동교구 순례단 발대미사가 7월 14일(목) 오후 7시 30분 삼덕젊은이성당에서 장신호(요한 보스코) 보좌주교의 주례로 봉헌되었다.

■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생명평화미사



사진제공 : 정의평화위원회

교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 신중호 신부)는 7월 18일(월) 오전 10시 30분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대성당에서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생명평화미사'를 봉헌하였다.

■ **답게** 살겠습니다 금주의 실천 사항



「답게 살겠습니다」는 2014년 세월호 참사와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을 계기로 평신도들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시작된 신앙실천운동입니다. 한 주간동안 교구 공동체가 함께 실천할 사항을 7월 3일부터 「대구주보」 1면에 하단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하느님의 자녀이자 신앙인답게, 각자의 가정, 교회, 직장 등에서 기본과 원칙을 지키고 실천하는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에 적극 동참합니다.

〈생명사랑운동 참여 방법〉

1. 가정 성화 및 생명 수호 미사 참여

기간 : 1월~11월(매월 마지막 월요일 11시)

장소 : 성모당

특전 : 자비의 희년 전대사 부여

2. 생명사랑 기부 참여

특별 기부(개인 및 단체) / 일반 기부(매월 5천원 이상 기부)

계좌번호 : 대구, 505-10-173562-7 / 국민, 612901-04-227935 / 농협, 301-0183-4632-01

문의 : 053-250-3011



미 사 안 내

구미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7월 25일(월) 11:00 도량성당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미사	7월 26일(화) 14:00 신암성당
대구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7월 25일(월) 11:00 계산성당		7월 26일(화) 19:30 다사성당
오순절평화의마을 후원회미사	7월 25일(월) 11:00 수성성당		7월 27일(수) 10:00 죽도성당
김천지역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7월 27일(수) 10:00 평화성당		7월 27일(수) 14:00 토마스성당

성소 | 피정

한국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성소자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모임이 가능합니다.
대상: 해외선교사제 지원자
문의: 최정열 신부,
(010)4055-5047

첫토요일 성모신심 소피정

일시: 8.6(토) 10:00
일정: 10:00 여성특강(문봉한 신부)
찬양미사, 면담 및 고해성사
버스: 영남대역 4번 출구(9:30 출발)
문의: 진량성당, 856-7676

천호성지 주말 영성 피정

기간: 7.29(금)~31(일)
장소: 천호성지피정의집
주제: 예수마음기도(권민자 수녀)
문의: (063)263-1004

성모님과 함께하는 6일 침묵 치유 피정

기간: 8.1(월)~6(토) / 대상: 누구나
장소: 아론의집(경기도 의왕시)
강사: 안토니오 신부 / 피정비: 39만원
주최: 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
문의: (010)2881-9396 / (010)2281-5689

젊은이 수도생활체험 피정

기간: 8.13(토)~15(월) 2박 3일
대상: 35세 미만 미혼 여성 / 3만원
주최: 아씨시의프란치스코전교수녀회
문의: 전베로니카 수녀, (010)5313-0241

엘리아와 함께하는 침묵 피정

기간: 8.13(토)~15(월)
장소: 한국외방선교수녀회 부산 본원
대상: 35세 미만 미혼 여성
문의: 루카 수녀, (010)9319-1690

잔꽃송이 피정

기간: 8.13(토)~14(일)
장소: 예수성심시녀회 성심교육관
대상: 중1~고3 (여학생)
신청: (010)9286-2247

평화계곡피정의집 향심기도 피정

기간: 8.16(화)~18(목) 2박 3일
대상: 향심기도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
피정비: 12만원
문의: 평화계곡피정의집(소울스테이),
(010)5332-7587

교육 | 모집 | 기타

베네딕도 성경학교 심화과정 신입생 모집

개강: 9.5(매주 월) 10:00, 19:30

장소: 베네딕도 교육관(사수동)
내용: 역사·예언서의 통합적 이해
대상: 성경 일반과정을 이수하신 분
문의: 313-3050 / (010)7185-3431

대가대 차이나포럼 제24기 원우 모집

개강: 9.26(월) 19:00(현재 접수중)
장소: 대구가톨릭대 평생교육원(감삼동)
내용: 석식, 명사특강, MT, 졸업여행 등
수업료: 100만원(6개월 과정)
문의: 원장 김영택,
(010)9494-8169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난타·고전무용, 동화구연2급, 오카리나, 수지침, 원어민영어, 필라테스, 발성법, 가곡성가, 하모니카성가, 미술심리상담2급, 시 창작, 왕초보관광영어, 제대·사범꽃꽂이, 클래식기타
신청: 254-6115

제2회 성바오로수도회 마음 캠프

기간: 8.12(금)~14(일)
장소: 성바오로수도회(서울 본원)
주제: 내 마음아 무엇을 찾고 있니
대상: 32세 이하 미혼 남성 / 선착순
문의: 김동주 수사, (010)3839-6976

천연염색공방 풀라빛
http://www.풀라빛.com

·의류 ·침구류 ·소품
·염색원단 ·감물 ·혼수품

색의 연구가 **이명숙** (루실라)
Mobile : 010-9350-4922
경북 청도군 화양읍 유등리 730번지

책임보험 1억 가입업체
도우미익스프레스

포장이사 · 사무실이사

대표 양말순(루시아)
591-2424 · 656-9911
010-2008-2329

이원 의 료 기

혈압계 · 혈당계 · 휠체어 · 산소치료기
뜸 · 부항기 · 주열기 · 찜질기
체온계 · 옥창매트 · 환자용품 · 안마기
실버카 · 보호대 · 글루코사인 · 오메가3

변상범(도미니코), 김인숙(아나타)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 앞
☎(053)256-2512(대표), 2513

KCB 포장이사서비스

꼼꼼히 딱 하루 한집만!!
홈케어 무료서비스

무료전화 080-053-1000
이옥수(아네스) 010-5048-7739

백내장수술, 근시교정수술
대구안과
DAEGU EYE CLINIC

의학박사 전문의 이호성(아오스당)
의학박사 전문의 조영수(다미아노)

☎(053)651-2233
남구 월배로 468 (구)달성군청자리

대구연세안과

아이디자인라식 · 렌즈삽입술 · 노안수술 · 백내장

지하철 1호선 영대병원역 2번 출구

의 학 박 사
현 연세대의대교수 원장 **박중원**(소시오)
☎(053)626-8881~5

www.appleuro.com
에플비노기과

비노기과 원장 강 일(베드로)
전 문 의 이영국(안드레아)

진림선 클리닉(레이저수술, 암검진)
오로결석클리닉(24시간 채석)

범여제거리 애플타워 5층 TEL. 755-0888

에너지공단 건물지원사업
(대성익트랜드 지열, 태양광 시스템)
LED 조명, 전력·조명관리시스템, 최대전력관리장치

에너지 절약 컨설팅
RECS
Renewable Energy Consulting Solution

T. 053)573-0205 (손 미카엘)
위치 : 대구테크노파크벤처기업센터
(* 대리점 모집, 일 배우실 분 환영)

행사 | 모임

바느의성모기도회 월례미사

가난한 이와 고통받는 이들에게
발현하신 성모님
일시: 7.28(목) 14:00 기도, 15:00 미사
장소: 삼덕성당

성령봉사회 2박 3일 성령세미나

기간: 7.29(금) 14:00~31(일) 17:00
장소: 월막피정의집(대구성령봉사회관)
신청비: 12만원(차량운행비 별도: 1만원)
신청: (054)954-0951 / (010)4461-4419

고성성당 새성전 기금마련 뮤지컬 공연

한가위 선물은 정난주 뮤지컬로 초대
기간: 9.23(금)~25(일), 오페라하우스
제목: 서울할망 정난주
문의: 352-1421

교육 | 모집

대구평신도(2016, 통권29호) 원고 모집

답게살겠습니다: 신앙운동 실천수기
자유기고문: 신앙체협, 시, 수필, 단상 등
마감: 9.30(금) / 제출: 교구 사무국,
dgsamok@daum.net /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채택료를 드립니다.

부모와 교육자를 위한 성교육

집중3일 연수

기간: 8.23(화)~25(목) 10:00~17: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강사: 이광호 베네딕도 / 마감: 8.19(금)
문의: 학교복음화담당, 250-3037

소람 상담사목교육 2학기 모집

마감: 8.23(화) 선착순 100명
내용: 자기이해 과정(상담심리학,
가족관계학)

신청비: 각 5만원
문의: 교구 소람상담소, 250-3100

한국잼버리 가톨릭스카우트 현장체합

기간: 8.3(수)~9(화) 6박 7일
장소: 대구 달성군 구지면 낙동강변
대상: 초·중·고등·학부모

다음 카페: 가톨릭스카우트 대구
참조: 한국스카우트연맹 홈페이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트리를 모집

대상: 학업중단청소년
지원: 검정고시 지원, 진로탐색
위치: 지하철 1호선 교대역 3번 출구
문의: 대구가톨릭청소년대안교육센터
(010)9177-6858 / www.cumtree.or.kr

대구가톨릭남성합창단 단원 모집

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찬양하실
단원(60세 이하)을 찾습니다.
연습: 첫째, 셋째 일요일 17:00
나머지는 토요일 19:00
문의: (010)3817-1963 / (010)3516-1911

성지안내봉사교육(한국천주교회사)

기간: 9.2~12.16(매주 금) 19:00~21: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강사: 이찬우(다두) 신부
회비: 5만원(교재 및 간식비)
문의: 성지안내봉사회,
(010)6610-6103

가톨릭근로자회관 8월 영아성경공부 모집

개강: 8.1(월) / 월 3만원(교재비 별도)
창세기: 월, 수 10:10 / 14:50 / 17:00
히브리·판관기: 화, 금 10:10
판관기·테살로니카: 화, 목 19:10
집회서: 목 10:10 / (010)2578-5535

대가대 평생교육원 2016년 2학기 모집

학점은행: 사회복지 및 아동학, 음악전공
보건학 개설(안경, 방사선, 물리치료)
취미·교양·자격증 및 전문가 양성과정
음악원: 1:1레슨 / 마감: 8.26(금)
개강: 8.29(월) / 신청: 660-5554~7

채용 | 안내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임양원

(국내임양전문) 입양상담 및 미혼모상담
문의: (02)764-4741~3
<http://www.holyfcac.or.kr>

대구가톨릭대병원 검진센터 이전 오픈

새롭게 단장한 종합검진센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검진 실시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
위치: 암센터·장기이식센터 5층
문의: 650-4114

일본성지순례
우쿠오카, 이라도, 나가사키 (3박 4일)
※ 출발일: 10월 26일, 11월 23일
T. (053)253-3399
(주)성지여행 조셉 레(유스티노) 홍 미희(안젤라)

32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독보청기
나노기술·디지털보청기 전문
053)257-8500 / 253-7476
방 프림치스코
중앙네거리~만경관 사이 지하도 입구

밝은귀보청기
세계 1~5위 미국·덴마크·독일 보청기
서문점 동인점
김은연 세실리아 최준우 미카엘
☎053)257-8588 ☎053)421-8588
NAVER 밝은귀보청기 검색

이상도 신경과
신경과 / 내과 / 정신건강의학과
이상도 (프란치스코)
대한 신경과 학회장 역임
대한 뇌전증 학회장 역임
대구 경북치매 연구회 회장
계명대학교 명예교수
현대백화점 뒤
☎ 053)252-0418

전기농산물건조기
제조공장 직접판매
채반10칸,12칸,13칸,14칸,24칸,28칸
삼성금산정밀
대표이사 이 규 천(베드로)
공장 ☎ 053)358-7735
노원네거리에서 조야교방면 도로5분거리

백두정형외과
정형외과 전문의 배억두 아오스딩
배상근 베드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임형준
동인 치안센터 건너편 T. 425-5919
어깨 무릎 발목 관절경수술
NAVER 백두정형외과 검색

H'S 희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LTD
대표이사 서 상 운(안젤로)
송 경 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 522-5800 | 010-4508-4328
010-2002-4328

자기주도학습전문
방학특강 · 공부방법
UP학습코칭·논술
윤 종 선 (가필로)
☎053)752-0966 범어동 KBS앞
NAVER 대구UP학습코칭 검색